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  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# [미국 금융]

- WSJ: 미국 무역 적자로 달러 약세

#### [미국 대선]

- WSJ: 선거 초반, 집중해야 할 카운티
- Bloomberg: 경합주의 불균형적인 경제 회복, 미 대선에 큰 영향

#### [주택]

- WSJ: 미국의 빈 아파트가 채워진다

#### [오일]

- WSJ: 미 대선 앞두고 유가 상승

#### [중국 경제]

- Bloomberg: 중국 서비스 성장률, 예상보다 높아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보잉 파업 끝났다
- Bloomberg: 아마존, 규제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시도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금융]

#### WSJ: Dollar Weakens as U.S. Trade Deficit Widens

##### 미국 무역 적자로 달러 약세

- 미국 무역적자 확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. 9월 무역적자는 844억 달러로, 8월 708억 달러 적자보다 증가했다. 수입은 3% 증가했고, 수출은 1.2% 감소했다. WSJ 달러 지수는 0.1% 하락했다.
- 반면,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. 이번 주 목요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.329%, 2년물은 4.194%에서 거래되고 있다.
- 현재 투자자들은 오늘 화요일 진행되는 미국 대선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. 투자자들은 앞으로 늘어나는 미국 국가 부채를 다음 행정부가 어떻게 다룰지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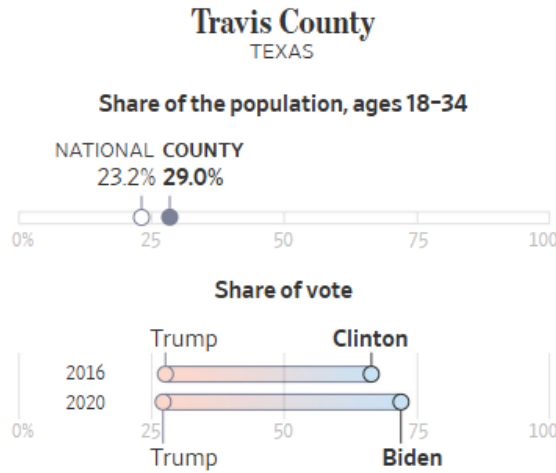
WSJ 기사

### [미국 대선]

#### WSJ: Watch These Counties for Early Clues to Election Night

### 선거 초반, 집중해야 할 카운티

- 2024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특정 카운티들이 있다. 경합주에 있는 특정 카운티에서 얼마나 큰 격차로 승리하는가가 2024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- 먼저 텍사스 대학교가 있는 Travis 카운티가 있다. Travis는 민주당의 주요 투표층인 대학생과 젊은 유권자들이 있다.
- 애틀랜타 Cobb 카운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.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Cobb에서 14%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, 조지아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.
- Milwaukee 카운티는 해리스에게 중요한 선거구다. 다양한 인종과 높은 인구 밀도를 가졌기 때문이다.
- 플로리다 Hernando 카운티는 이전 선거에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다. Hernando에는 여러 노인 커뮤니티가 있다.
- 디트로이트 북쪽 Macomb 카운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블루칼라 교외 거주민이 많다. Macomb 카운티는 위스콘신의 Racine이나 펜실베이니아의 Beaver와 같은 중서부 산업 벨트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.
- 펜실베이니아-웨스트 버지니아 경계에 위치한 Fayette 카운티는 트럼프에게 중요한 시골 백인 유권자가 많다.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와 같은 도시에서 입을 손실을 메꾸기 위해선 농촌 카운티에서 큰 승리가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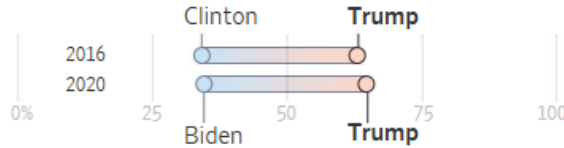


### Hernando County FLORIDA

#### Share of the population, ages 65+



#### Share of vote



WSJ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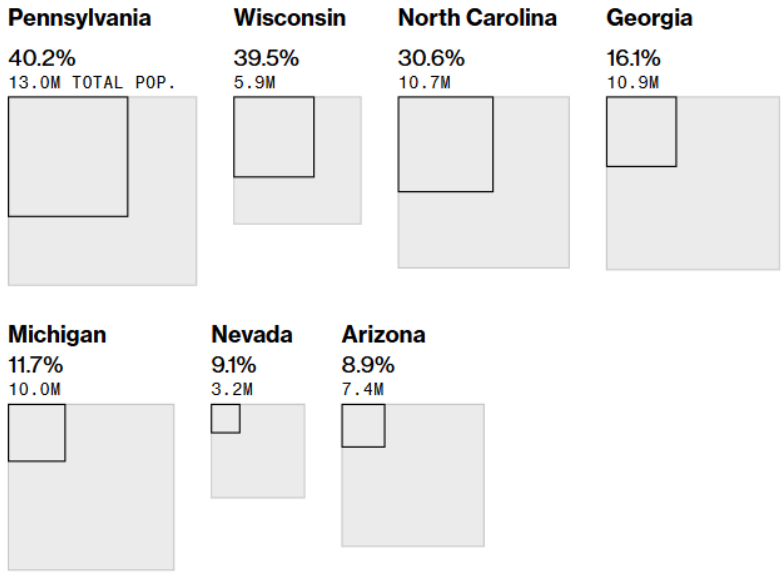
## Bloomberg: Uneven Recovery in Swing-State Economies Hangs Over US Election

### 경합주의 불균형적인 경제 회복, 미 대선에 큰 영향

- 블룸버그의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.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후보이다.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트럼프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.
- 현재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허리케인과 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.
- 하지만 그 회복 속도는 경합주 내에서도 천차만별이다. 펜실베이니아에서 필라델피아와 같은 대도시 지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 하지만 주 인구의 40%가 거주하는 카운티들은 2022년 말까지 팬데믹 이전의 GDP를 회복하지 못했다. 또한 경제 회복이 느린 카운티에선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다.
- 미시간, 네바다,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에서 불행 지수가 가장 높다. 네바다의 실업률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.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된 블룸버그 여론조사에서 네바다 유권자 73%는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. 전체 경합주 평균인 68%보다 높은 수치다. 주택 구입 비용과 임대료도 비싸지고 있다.

### Uneven Recovery

Percent of population in swing states living in a county that had not recovered to pre-pandemic GDP levels by end of 202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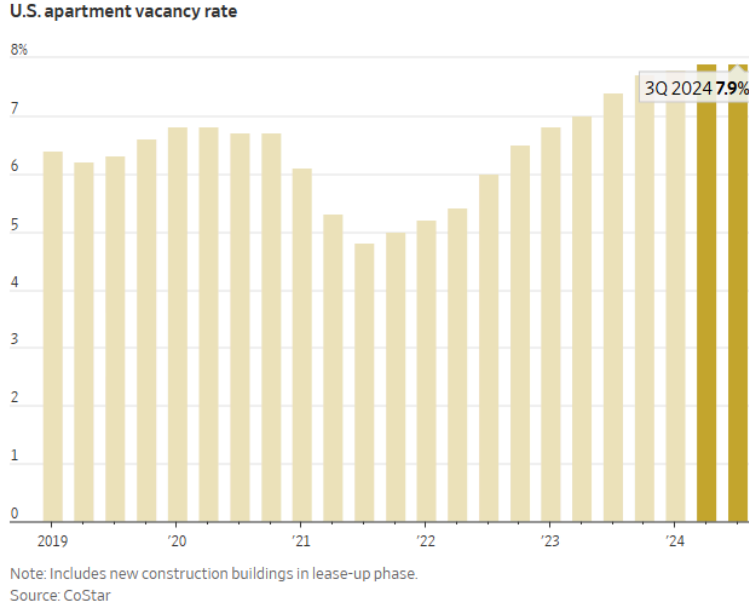
Source: Bloomberg analysis of BEA and US Census data

Bloomberg 기사

### [주택]

#### WSJ: America's Empty Apartments Are Finally Starting to Fill Up 미국의 빈 아파트가 채워진다

- Coster에 따르면 아파트 수요가 2021년 이후 최고치로 증가했다. 공실률 즉, 비어 있는 아파트 가구 비율이 지난 분기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췄다. 지난 2년 동안 건설된 120만 채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채워지고 있다.
-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. 투자자들은 시장 가격이 이미 바닥을 쳤고 이제 반등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. 판매자들도 가격 결정에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.
-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다. 특히 플로리다주 Phoenix와 Tampa와 같은 선벨트 지역은 임대료가 20% 이상 상승했다. Yardi Matrix에 따르면 임차인은 지난 8월 기준 평균 3.5%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.
- 반대로 임대료가 유지되는 곳도 있었다. 텍사스주 Austin은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임대 임대료 상승률이 미국 대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.
- Coaster에 따르면 Austin의 공실률은 15% 이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았다. Austin의 새로운 건물주들은 빈 건물을 채우기 위해 몇 달간의 무료 임대료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


WSJ 기사

[오일]

**WSJ: Oil Edges Higher Ahead of U.S. Election**  
**미 대선 앞두고 유가 상승**

- 미 대선을 앞두고 OPEC+의 증산 계획 연기 결정으로 유가가 2% 이상 상승했다. 브렌트유는 0.4% 상승한 배럴당 75.37달러,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.4% 상승한 배럴당 71.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
-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유가를 올리고 있다. Swissquote 은행의 Ipek Ozkardeskaya는 “유가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선 중국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고, OPEC+가 감산을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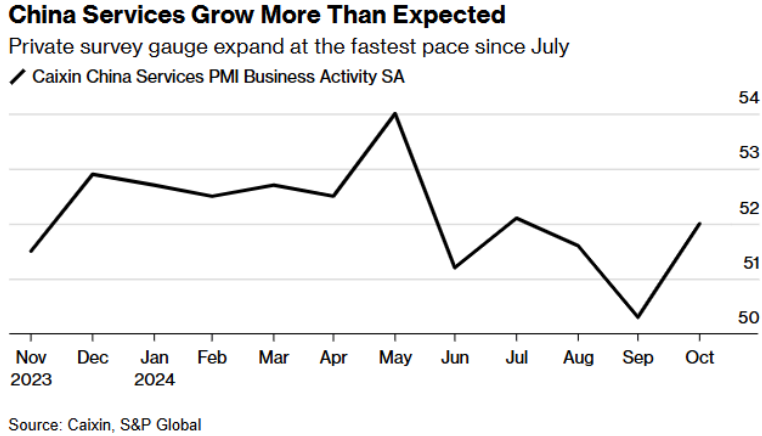
WSJ 기사

[중국 경제]

**Bloomberg: China Services Growth Picks Up More Than Expected After Stimulus**  
**중국 서비스 성장률, 예상보다 높아**

-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 서비스 활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. 중국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다.
- 오늘 화요일, Caixin과 S&P 글로벌은 10월 중국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지난달 50.3에서 5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. 작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.

- 중국 정부는 9월 말 금리 인하와 주식 및 부동산 시장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했었다.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 중국 정부가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.
- Li Qiang 중국 총리는 오늘 화요일, 중국 정부는 경기를 회복하고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.
- 이번 주 목요일 중국의 10월 무역 수치가 발표될 예정이다. 경제학자들은 9월에 하락한 수출 증가율이 낮게나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

Bloomberg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#### WSJ: Boeing Union Votes to End Strike

##### 보잉 파업 끝났다

- 보잉 파업이 8주 만에 끝났다. 노조 측은 투표 결과 59%의 찬성으로 회사의 새로운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.
- 새로운 합의안에 따르면 4년 동안 38%의 임금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. 또한 1만2천 달러의 일회용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했다.
- 노조 측이 앞서 두 차례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노조 측의 요구인 40% 임금 인상에 가까운 합의안을 제시한 것이다. 회사 측은 원래 25% 인상을 제시했었다.
- 파업이 끝나면서 보잉의 공급업체들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. 보잉이 파업 초기 새 부품 납품을 대부분 중단하면서 부품 제조업체들도 생산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결정을 내렸었다. 동체 제조업체인 Spirit AeroSystems는 수백 명의 직원에게 무급 휴직을 명령했다.
- 보잉은 737 MAX 기종의 도어 플러그 패널이 비행 중 떨어지는 사고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올해 첫 9개월 동안 100억 달러 현금을 소모했다. 2025년에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또한 보잉의 베스트셀러인 737을 비롯한 제트기 생산을 위한 공장 재가동에는 아직 몇 주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## WSJ 기사

**Bloomberg: Amazon Still Backs Talen Nuclear Deal After Regulator Rejection****아마존, 규제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시도**

-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펜실베이니아의 원자력 발전소인 Talen Energy와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,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(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)가 이를 제재했다.
- 아마존은 규제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Talen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지난 3월 Talen은 아마존이 최대 960메가와트를 사용할 데이터 센터를 위해 6억5천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었다. 해당 데이터 센터는 Talen의 Susquehanna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었다.
-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은 원자력 발전소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.

## Bloomberg 기사

**[보고서]**

**월가, '엔비디아 칩 담보' 15조원 대출...채권시장에도 AI 열풍**  
**코어위브 등 네오클라우드 업체 대상**  
**AI 붐 지속성 여부, 담보 가치에 의문도**

인공지능(AI) 붐 속에 미국 월가 금융기관들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담보로 15조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주면서 새로운 채권시장이 형성되고 있다.

4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에 따르면 블랙스톤·핌코·칼라일·블랙록 등 월가 금융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'네오클라우드' 업체들에 이러한 방식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.

코어위브·크루소·람다랩스 등 네오클라우드 업체는 AI 제품을 만드는 기술기업들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며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(GPU) 수만개를 보유하고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